

2004

KoreaMed KoMCI
Web

(,)



KoreaMed KoMCI Web

(,)

1. KoreaMed

1996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의편집)를 창립할 당시 협회의 목표는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발전을 장기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술지 발전 유도 전략은 개개의 학술지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평가를 통하여 각 학술지의 편집 체제와 편집 기술을 향상시키고 배포 범위 (독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였다⁽¹⁾. 그러나 채찍만 있고 당근이 없는 의편집 활동과 목표에 대하여 우려가 없을 수 없었다. 우수 학술지를 선정하여 발행기관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 학술진흥재단 등과는 달리 의편집은 그럴 재원이 없었다. 그러므로 의편집은 의학 학술지 발행기관에게 줄 다른 인센티브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생각을 받아들여 구체적으로 의편집 정보위원회를 구성하고 KoreaMed를 개발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의편집 정보위는 KoreaMed를 구축하되 국내외에서 이용할 의학 문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영문으로 작성하기로 하였고 우선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정보화가 활발하게 된 시기인 1997년 이후 의학 정보만을 대상으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학술지 평가를 통과한 우수 학술지의 문헌 정보를 등재하여 학술지 평가의 인센티브로 하였으므로 의편집 학술지 평가 통과는 곧 KoreaMed 등재학술지가 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당시 의편집은 재정형편상 KoreaMed 운영을 “학술정보” 회사와 계약하여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1999년부터 시작한 KoreaMed 운영은 시작한지 1년여 만에 “학술정보”의 문헌 정보 수집과 자료 입력 능력의 한계, 수익성 개발의 한계 등의 문제에 봉착하였고 이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었다.

2000년 의편집은 당시 함창곡 회장이 KoreaMed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학술정보”와 해약하고 운영권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의편집 예산 중 예비비를 KoreaMed 개발에 투입하고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이춘실 교수에게 개발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모습과 같은 KoreaMed 데이터베이스는 문헌 정보 4,000건을 등재하면서 2001

년 8월 처음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약 2년 반이 지나 KoreaMed는 우리나라 의학정보 60,000건 이상을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다. 지난 2년 여 기간에 KoreaMed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몇 차례에 걸쳐 발전하였다. 첫째 KoreaMed Retro 사업으로 이 사업은 KoreaMed 데이터베이스 대상이 아닌 1997년 이전 문헌 정보를 입력하는 사업이다. 현재 등재 학술지 중 일부만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등재학술지 전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KoreaMed Retro는 KoreaMed에 연계하여 검색되도록 운영한다. 두 번째 발전은 KoreaMed에 XML 파일로 학술지 문헌 정보를 접수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현재 20여 학술지가 이 방식으로 등재한다. XML 파일 제출 방식으로 신속하게 최근 문헌 정보를 등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가 최근 정보까지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한다. 셋째 2002년에 LinkOut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찾은 학술지 문헌 정보로부터 직접 원문 (full text)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KoreaMed는 그러나 LinkOut을 통하여 이용자가 원문에 접근하도록 도울 뿐이다. 학술지의 저작권을 보유한 발행처가 이용자 접근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부분적으로만 허용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체제로 만들었고 이 방식을 통하여 발행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넷째는 KoreaMed Central 사업으로서 의학 학술지 발행처가 원하는 경우 학술지 홈페이지 제작을 돕고 문헌 정보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모든 작업을 의편협 소속 전문 직원 1명이 관장하고 있으며 이 전문 직원은 대한의학회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대한의학회는 정식직원 4명 중 1명은 의편협 지원이 주 임무이고, 1명은 KoreaMed 담당이다. 대한의학회는 이만큼 의편협 사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현재 KoreaMed는 우리나라 의학도서관과 의학회 회원 학회 수십 개 처 홈페이지에 아이콘이 설치되어 KoreaMed에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는 WAM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홈페이지에 아이콘이 설치되어 있어 외국인도 접속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KoreaMed 데이터베이스에는 매일 세계적으로 200-300 유효 이용자가 접속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하여 사랑받고 있다. KoreaMed의 가장 큰 장점은 최근의 문헌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의학자가 국내 문헌 정보 찾기가 외국 문헌 검색보다 훨씬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하고 있다⁽²⁾.

KoreaMed의 중기적인 발전 목표는 우리나라 의학 정보 전체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문헌 정보 약 20만개가 입력되면 이 부분은 일단 완성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문헌 정보만 추가하면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KoreaMed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충분히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MeSH 체제 구축이 꼭 필요

하며 MeSH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1년과 2003년에는 KoreaMed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대한의학회가 기획하여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KoMCI 및 KoMCI Web 사업이다.

2. KoMCI KoMCI Web

2001년 3월 대한의학회 지제근 회장은 주식회사 메디슨이 출연한 재단법인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지원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지원재단 이사회가 우리나라 의학 정보 사업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한의학회 내 KoMCI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개발사업단을 지원하도록 하는 결의를 주도하였다. 이 결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 정보 사업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새로이 구성한 개발사업단의 책임자는 의학회 간행이사가 되었다. KoMCI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발간하는 의학 학술지의 학술 정보를 자체 학술지 또는 다른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얼마나 인용하고 이용하는지를 계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작하였다. 이 사업으로 2002년 4월 KoMCI 2000, 2002년 12월 KoMCI 2001, 그리고 2003년 6월 KoMCI 2002를 출판하였으며 2004년 6월에 KoMCI 2003을 출판할 예정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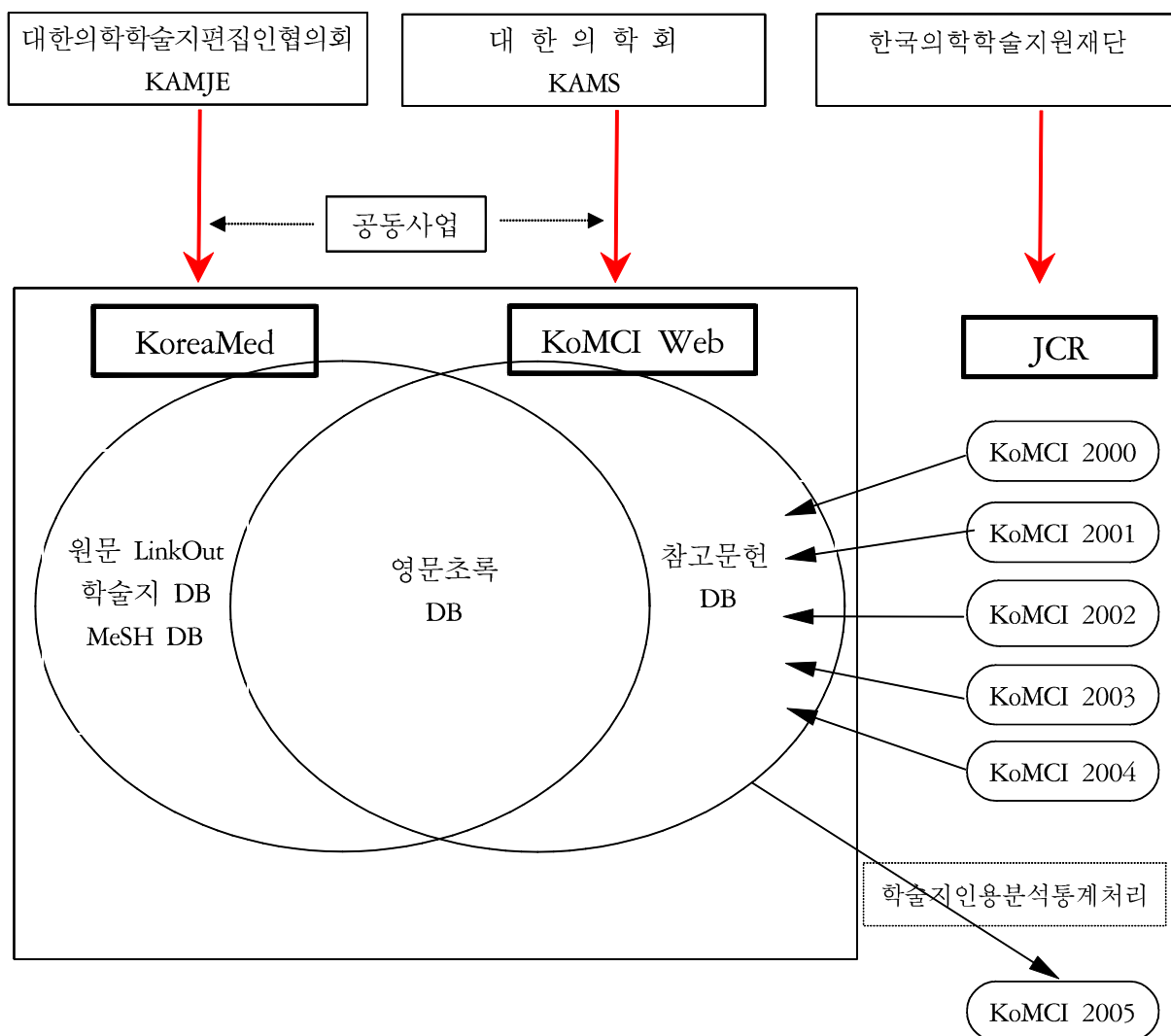
KoMCI 사업은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학술 논문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빈도와 이용 상태를 학술지 별로 명확하게 자료화하였다. 조사 대상 학술지는 KoreaMed 등재학술지로 하였다. 지금까지 발표한 인용정보는 학술지별로만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므로 성격상 SCI의 JCR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학술지 별로 자료화 하기는 하였으나 개개 논문 별, 학술 기관 별, 개인 별 논문의 인용 정보를 아직 알려 주지는 못하고 있다. KoMCI 2000-2002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자료가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인용 정보를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2003년도 자체 예산에 KoMCI Web 개발 사업비를 책정하고 이를 대한의학회 내 KoMCI 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개발사업단에서는 KoMCI Web을 개발하였다. 이 사업은 KoreaMed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KoreaMed KoMCI

KoreaMed는 회원 학술지의 학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

공한다. KoMCI 사업의 대상은 KoreaMed가 평가한 우수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다. KoMCI 사업은 대상 논문의 참고문헌 중 국내문헌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지원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KoMCI JCR에 해당하는 학술지별 인용정보를 책자로 발간한다. 대한의학회가 직접 지원하는 KoMCI Web 사업은 국내 의학 학술지의 인용정보를 광범위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고 이 사업 또한 KoreaMed 학술지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림).



즉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논문을 대상으로 만든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와 KoMCI Web을 통합하면 매우 이상적인 의학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KoreaMed 이용자에게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면 이용자는

원하는 학술 정보뿐 만 아니라 그 논문을 인용한 학술 논문을 따라가면서 참고할 수 있는 환상적인 검색이 가능하다. 이 가능성을 통합 사업으로 완성하고 활성화시키면 KoreaMed Retro에 자료를 제공하는 학술지가 더욱 돋보이는 학술지가 될 것이다. KoreaMed Retro에 각 학술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조승열. 의학 학술지 평가사업 [시론]. 대한의사협회지 1999;42:330-3.
2. 허선. 코리아메드 (KoreaMed): 세계로 열린 우리 의학정보의 창. 대한의학회 회보 2003; 제72호, p3.
3. 조승열. 국내 의학 학술 문헌의 이용 [시론]. 대한의사협회지 2003; 46:866-8.